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라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후天的인 노력에 달려 있다.

## <인간합창의 귀적> 전시

인간합창의 귀적은 '인간합창의 귀적'이라는 전시를 통해 소개된다. 5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한 이번 전시에는 80여 개의 작품이 소개된다. 전시를 통해 인간합창의 귀적에 대해 알아보고, 인간합창의 귀적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인간합창의 귀적> 전시

이번 전시를 통해 '인간합창의 귀적'이라는 전시를 소개한다. 5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한 이번 전시에는 80여 개의 작품이 소개된다. 전시를 통해 인간합창의 귀적에 대해 알아보고, 인간합창의 귀적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Epworth)라는 이름의 전시를 소개한다. 전시, 전시, 전시를 소개한다.



김영의, 엡윗 청년회.

김 '엡윗 청년회' 창립자로서 1908년 8월 10일 태어났으며, 1929년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을 졸업하고, 1935년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50년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963년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63년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963년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최영섭 작곡가겸 지휘자

최영섭 작곡가 겸 지휘자 '최영섭의 삶'은 최영섭 작곡가 겸 지휘자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삶과 예술 활동을 다룬다. 1958년 인천구국악협회에서 지휘자로 활동하며 '친시항쟁의 밤'을 지휘하며, 인천예호가협회를 설립하고, YWCA, YMCA 등에서 지휘자로 활동하며 문화 예술을 발전시켰다. 1968년 인천시문화상을 수상하며, 1996년 한국음악상을 수상하며, 1998년 세종문화상을 수상하며, 2009년 대한민국문화훈장을 수상했다. 1970~1980년대에는 안양대, 상명대, 세종대 등에서 강의하며, 1996년 한국음악상을 수상하며, 1998년 세종문화상을 수상하며, 2009년 대한민국문화훈장을 수상했다.





윤학원 예술감독

그는 '대한민국 음악'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한국 음악의 발전을 이끌었다. 그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음악의 발전을 이끌었다. 그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음악의 발전을 이끌었다. 그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음악의 발전을 이끌었다.



'인천'을 주제로 작곡된 합창곡

인천을 주제로 작곡된 합창곡은 1961년 인천합창단 창립 이래로, 2014년 인천합창단 창립 50주년을 맞아 '인천'을 주제로 작곡된 합창곡을 소개하고 있다. 이 전시에서는 '인천'을 주제로 작곡된 합창곡의 역사와 함께, '인천'을 주제로 작곡된 합창곡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인천'을 주제로 작곡된 합창곡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인천합창의 궤적> 전시 전경

□/ □□□  
 □□□□□□ □□□□ □□, □□□□ □□□□ □□  
 □□ □□□□□□ □□□□ □□□ □□ ( D.M.A.)  
 YTN “□□□□ □□□□” □□  
 □□□□, □□□□. □□□□ □□  
 (□)□□□□ □□□□□□ □□  
[□□□□ □□□□ ▶](#)  
[□□□□ □□□□ ▶](#)

□□  
 □□□